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탑엔지니어링(06513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장소현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엔지니어링(065130)

정밀 공정 기술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스마트 제조 솔루션 파트너

기업정보(2026.10.12 기준)

대표자	안만호
설립일자	1993.11
상장일자	2003.01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카메라모듈, 배터리 보호회로, 공정장비

시세정보(2026.10.12 기준)

현재가(원)	2,97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476
발행주식수	16,004,000
52주 최고가(원)	4,685
52주 최저가(원)	2,380
외국인지분율	4.49
주요주주	김원남

■ 디스플레이·2차전지·카메라모듈을 아우르는 종합 공정장비 기업

(주)탐엔지니어링(이하 동사)은 1993년 설립 이래 TFT-LCD·OLED 공정장비를 핵심 축으로 성장해 온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다. 동사는 Dispenser, GCS(Glass Cutting System), Array Tester 등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주요 패널사에 공급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OLED 공정장비, 카메라모듈(CM) 검사·조립 장비, 2차전지 공정장비로 사업 영역을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연결 기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공급망

동사는 연결 기준으로 장비부문과 2차전지·카메라모듈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연결 종속회사를 통해 국내외 생산 거점 및 영업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종속회사인 (주)파워로직스는 2차전지 보호회로(PCM) 및 카메라모듈 사업을 담당하며, 베트남·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생산 효율화와 원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 본사 공장과 경기도 판교 R&D 센터를 근간으로 독일·미국에 해외 사무소 및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7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술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사업 체질 전환

동사는 2019년 2차전지 장비 사업에 진출한 이래 Z-스태킹 장비, 폴딩장비 등 핵심 공정장비를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자회사 파워로직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평가장비, OLEDoS 제조 기술 등 차세대 분야에서의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5년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및 제62회 무역의 날 5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9,593.8	2.45	219.1	2.28	220.9	2.30	6.74	4.11	70.32	770	12,128	7.15	0.45
2024	8,154.2	-15.01	-74.7	-0.92	45.6	0.56	-0.24	0.79	74.88	-27	13,056	N/A	0.42
2025	7,985.0	-2.08	-352.2	-4.41	-456.6	-5.72	-21.16	-8.38	70.73	-2,230	10,304	N/A	0.32

기업경쟁력

글로벌 점유율 선도 장비

- Dispenser-GCS, 글로벌 주요 패널사 공급 기반의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
- Array Tester 원천기술 기반 디스플레이 모듈 테스터 시장 신규 진입 성공
- OLED 공정장비(Dam & Fill, Optical Bonding 등) 국내외 패널사 및 전장업체 공급

다각화 사업군과 계열 시너지

- 장비부문·2차전지·카메라모듈·소재 등 4개 핵심 사업군으로 분산된 매출 구조 보유
- 자회사 파워로직스 통한 글로벌 스마트폰 메이저 1차 협력사 지위 유지
- 베트남·중국 생산법인 및 독일·미국 법인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Dispenser-GCS 공정장비

- 액정 정량 토출 및 글라스 커팅 분야 자체 원천기술 기반 글로벌 점유율 확보 제품으로, LCD-OLED 패널 제조 전공정의 핵심 장비군을 형성하고 있음

<Dispenser-GCS 공정장비>



2차전지 공정장비

- Z-스태킹 장비·폴딩장비·전극공급기 등 배터리 제조 핵심 공정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국내 메이저 고객사에 공급 중이며, 자회사 배터리팩 생산라인도 내재화하고 있음



시장경쟁력

디스플레이 장비 검증 고객 기반

-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메이저 패널사에 Dispenser·Array Tester 등을 납품하며 기술 신뢰성을 검증받았으며, 2026년 OLED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68% 증가하는 업황에서 직접적 수혜가 기대됨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고성장

-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은 약 1,2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연평균 약 7.49%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77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사는 디스플레이·2차전지 장비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하이브리드 배터리팩 신성장 사업

- 글로벌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6년 약 260억 달러 규모이며 2031년까지 CAGR 2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동사 계열사는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팩 공급을 2026년 초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됨

I.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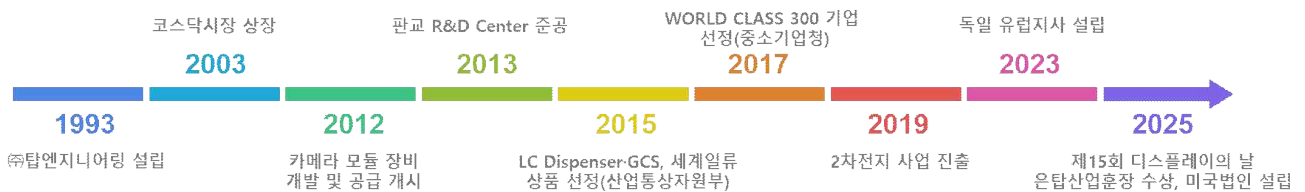
디스플레이/배터리/카메라모듈 공정장비와 에너지솔루션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증권 종합 장비/부품 기업

동사는 1993년 설립 후 코스닥 상장(2003년)을 거쳐 30여 년간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분야에서 국내외 메이저 패넌사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며 성장하였고, 카메라모듈/2차전지/에너지솔루션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종합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연결 기준 14개 종속회사와 함께 국내외 생산 및 영업 거점을 운영 중이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93년 11월 경상북도 구미에서 설립된 이래 TFT-LCD 공정장비 개발 및 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2003년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창업 초기부터 Dispenser, GCS, Array Tester 등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장비에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메이저 패넌사의 신뢰받는 공급사로 자리를 굳혔고, 이후 2013년 판교 R&D 센터 준공을 계기로 기술 고도화를 가속하였으며, 2015년에는 LC Dispenser와 GCS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2020년 베트남, 2023년 독일, 2025년 미국 등 해외 거점을 잇달아 구축하였으며, 2019년에는 2차전지 장비 사업에 진출하여 사업 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제15회 디스플레이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및 제6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의 대표이사 안만호는 성균관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출신으로, LG반도체 연구소 연구원 이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사 설립 초기부터 참여해 32년간 장비 개발, 생산 현장을 이끌어 온 창업멤버형 경영자이다. 반도체 소자 공정 분야의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의 내재화와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신사업 진출을 주도하였으며, 2025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가구조 개선, 베트남 생산거점 이전, 수익성 중심 수주 전략으로 사업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하이브리드 배터리팩 공급 본격화, 화장품·제약·전장 분야 신규 자동화 설비 수주 확대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 기존 디스플레이 장비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 기반 경영자로서의 현장 감각이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 김원남이 2,401,000주(지분율 15.00%)를 보유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25일 기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합산 보유주식수는 4,619,793주(보유비율 28.87%)로 확인된다. 특별관계자로는 계열회사 (주)파워로직스(1,537,123주, 9.60%), 임원 류도현(515,768주, 3.22%), 임원 안만호(85,000주, 0.53%), 친인척 유미애(23,519주, 0.15%), 계열회사 임원 박찬배(11,427주, 0.07%), 기타 특수관계인(45,956주, 0.30%) 등을 포함한다. 최대주주 본인의 단독 지분과 계열회사·임원·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합산 기준 약 28.87%의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외부 경영 간섭 가능성이 낮고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8.25, DART 기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소액주주 및 자기주식 비율은 사업보고서(2025.12.31) 기준

■ 사업 분야

동사는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장비부문), 에너지솔루션(ES), 카메라모듈(CM) 및 기타 부품·소재의 4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 기준 14개 종속회사와 함께 국내외 생산·영업 거점을 통해 각 부문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매출유형	품목	제품 설명
장비부문	LCD-OLED 공정장비, 2차전지 공정장비,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Dispenser-GCS-Array Tester-Dam & Fill 등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공정장비 개발·제조·판매
2차전지 및 ES (Energy Solution)	보호회로모듈(PCM), 스마트모듈(SM)	스마트폰·태블릿·전기차용 2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 제조·공급
CM(Camera Module)	스마트폰용 CM, 차량용 CM	스마트폰·전장용 카메라모듈 조립·검사 및 공급
기타	부품·소재, 도시광산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소재 및 희소금속 재활용 사업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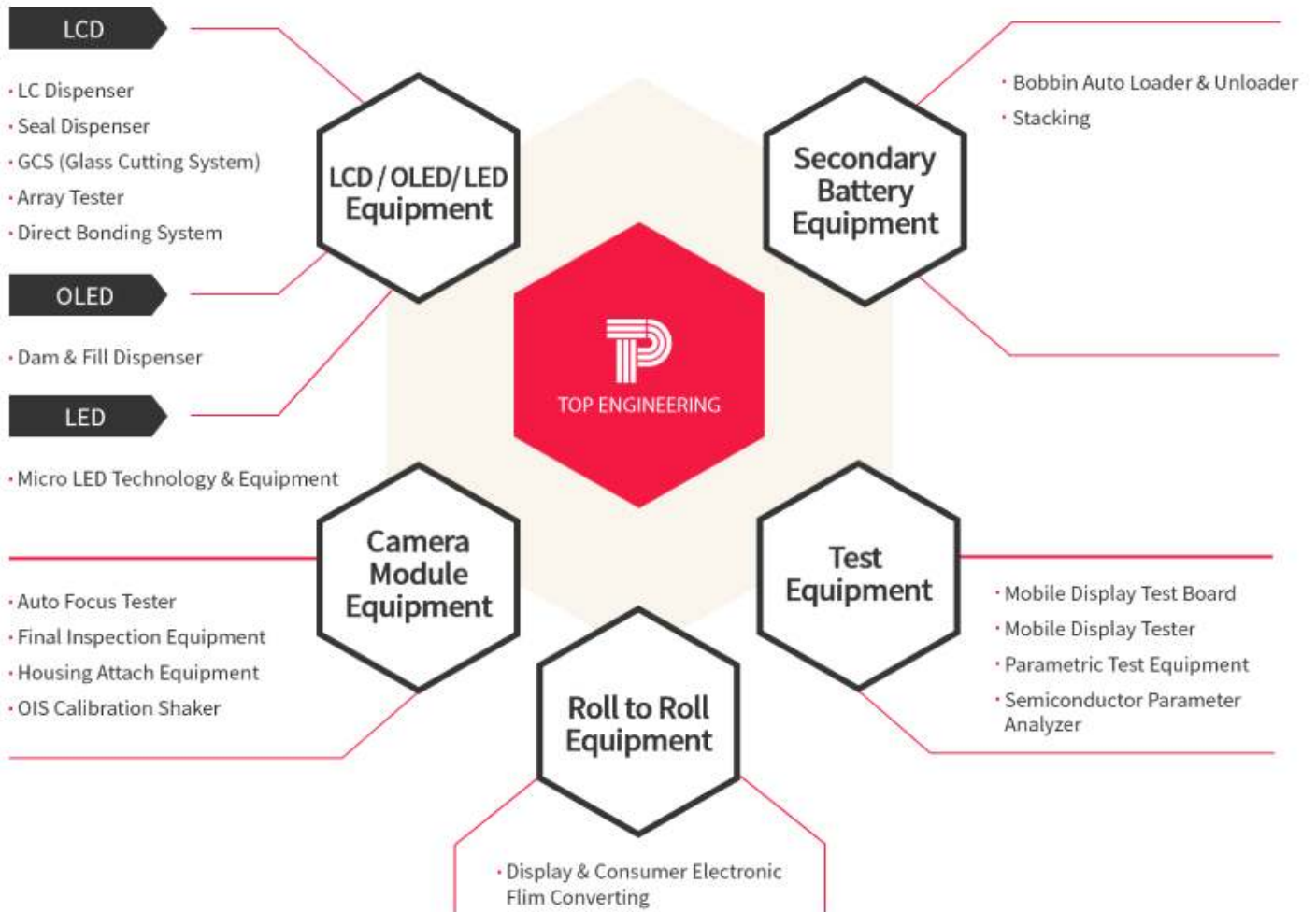
장비부문에서 동사는 Dispenser, GCS, Array Tester 및 세정기 등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장비를 국내외 메이저 패널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Dispenser와 GCS는 글로벌 주요 패널사에 납품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디스플레이 모듈 테스터 장비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국내 대형 패널사에 납품하고 관련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OLED 공정장비 분야에서는 기존 LCD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Dam & Fill, Optical Bonding, OLED용 Array Tester 등을 자체 개발하여 국내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ptical Bonding 장비를 국내외 차량 전장업체에 공급하는 등 전장 시장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차전지 장비 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을 응용하여 전극공급기, 폴딩장비, Z-스태킹 장비 등 핵심 공정장비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국내 배터리 메이저 고객사에 공급 실적을 확보하고 있고, Battery Pack 조립라인을 자회사에 공급하는 등 장비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솔루션(ES) 부문은 자회사 (주)파워로직스가 담당하며, 2차전지 보호회로(PCM·SM) 및 배터리팩 제조·공급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파워로직스는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2차전지 보호회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선도기업으로, 스마트폰·노트북 등 소형 모바일 기기용 보호회로 시장에서 국내 S사·L사 등 배터리 메이저 제조사의 주력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소형 모바일 기기를 넘어 무선청소기·태블릿 PC·전기자동차·스쿠터 등 운송기기 분야로 배터리팩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초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팩 공급을 본격화하여 중대형 전지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메라모듈(CM) 부문은 파워로직스가 2004년 하반기부터 진입한 사업으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1차 협력사로 자리매김하여 보급형부터 프리미엄 고화소 모델까지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카메라모듈은 광학, 기구, 센서응용, S/W 등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자동초점(AF)·손떨림보정(OIS) 등 고기능화와 듀얼·트리플 등 멀티카메라 탑재가 본격화되면서 양적·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CM 부문은 동사 연결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으로, 자동차·드론·의료용 내시경 등으로 적용 분야를 지속 확대하며 성장 잠재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파워로직스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비부문과 CM 부문 간의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타 부문에서는 자회사 (주)탐머티리얼즈를 통해 도시광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폐기물 재처리 허가 취득을 계기로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티앤에스, (주)엔코 등 계열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소재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 전체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동사 사업분야



자료: 동사 홈페이지

II. 시장 동향

국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시장,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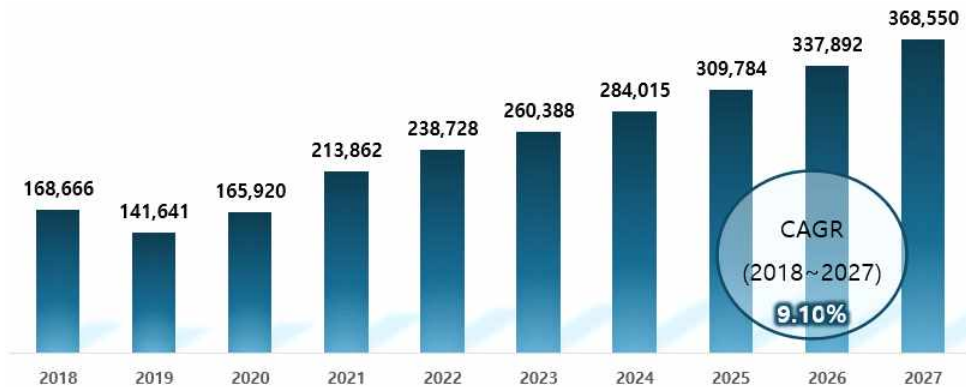
국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시장은 2018년 약 16조 8,666억 원에서 2022년 약 23조 8,728억 원 규모로 연평균 9.1% 성장하였으며, 동일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27년에는 약 36조 8,55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은 2025년 약 1,24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연평균 약 7.49%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77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국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6조 8,666억 원에서 연평균 9.1%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23조 8,728억 원의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 목표시장의 규모는 약 36조 8,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은 SEMI 보고서를 기준으로 2025년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약 1,2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6년에는 약 1,38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약 7.97%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8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I·5G·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 공정 투자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국·대만·한국은 2026년까지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 상위 3개국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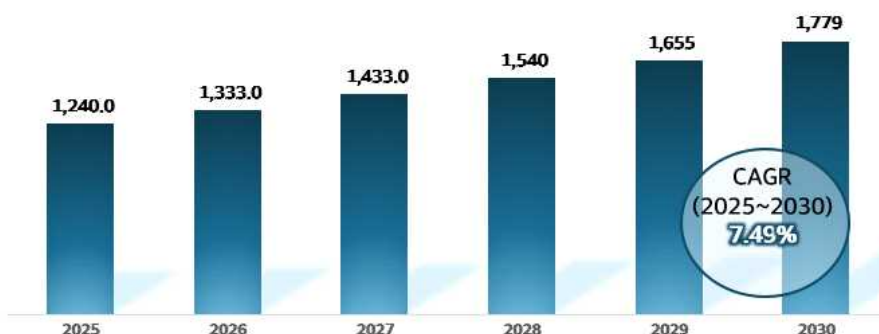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출처: TDB 시장보고서(광업제조업조사, 국가데이터터, 2024.08), NICE평가정보㈜ 재가공

그림 5. 해외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Mordor Intelligence, Semiconductor Equipment Market Size & Share Analysis(2025), NICE평가정보㈜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대형 수요처가 설비 투자 계획을 주도하고, 그에 종속되어 중견·중소 장비사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종 수요처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 수주 변동이 큰 편이며, 기존 공급 레퍼런스가 신규 계약 수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 제품의 신뢰성이 패널 업체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존 공급사와의 거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장비사들은 부품 국산화를 제고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베트남·중국 생산거점 운영 확대와 자동화 라인 구축을 통해 원가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추세가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기술 트렌드로는 OLED 투자의 급격한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다. 2026년 전체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중 OLED 비중은 8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중국 BOE의 8.6세대 OLED 공장 건설에 약 12조 원이 투입되는 등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AI·5G·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 공정 노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3DIC·고급 패키징 장비 등 고부가가치 장비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장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 공정에서 후공정까지 첨단 패키징 기술 수요가 동반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배터리 장비 분야는 하이브리드·ESS·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기차 이외의 새로운 수요처가 빠르게 확대되며 배터리팩 공급 생태계 전반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국내외 디스플레이·반도체·2차전지 장비 산업은 고객사의 수직 계열화 요구와 원가 경쟁 심화, 중국 장비사의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장비 시장에서는 ASML·Applied Materials·Lam Research·Tokyo Electron 등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전공정 핵심 장비를 과점하고 있으며, 후공정·공정 자동화·특수 공정 장비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내 장비사의 중국향 수출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경쟁 구도는 대형 장비사가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른 수주 변동성을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원가 절감으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되며, 디스플레이 외 반도체·2차전지·물류 자동화 등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고객기반 다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에스에프에이(SFA)	•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이차전지·반도체 물류·스마트팩토리로 사업을 전환하며 非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종합 자동화 장비 업체
주성엔지니어링	•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분야 ALD/CVD 장비에 강점을 보유한 기술 집약형 장비 업체로, 세계 최초 기술 다수 보유
참엔지니어링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용 레이저 리페어·OLED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중견 장비 업체

자료: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30년 축적 디스플레이 공정 원천기술 기반 특허 569건 보유, 반도체·2차전자·전장으로 기술 영역 확장

동사는 국내 특허 283건·해외 특허 161건을 포함한 총 444건의 특허권과 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등을 합산하여 총 569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2025년 12월 말 기준),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검증된 정밀 토출·커팅·검사 기술을 2차전자 장비·반도체 테스트 장비로 확장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디스플레이 공정 핵심 기술

동사는 디스플레이 공정 전반에 걸쳐 정밀 토출, 글라스 커팅, 전기적 특성 검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다. LC Dispenser는 액정 정량 토출 장치 및 제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국내 대형 패널사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특허 출원을 병행해 왔으며, GCS(Glass Cutting System)는 PCD Wheel 방식의 멀티 커팅 헤드 구동·제어 기술과 Cross Cutting 기술로 대형 글라스의 고정밀 반송 및 절단이 가능한 장비를 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eal Dispenser는 도포 속도 향상과 프레임 경량화 기술을 통해 해외 고객 맞춤형 사양 대응 능력을 구현하였으며, 동사는 10세대급 대형 패널 대응 장비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주요 패널사와의 장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Laser GCS는 펄초 레이저 기반 스크라이버와 Film & Glass Cutting 인라인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책과제를 통해 레이저 광원 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OLED·카메라모듈 장비 기술

동사는 OLED 공정장비에서 Dam & Fill, Optical Bonding, OLED용 Array Tester 등 주요 공정장비를 개발하여 국내외 패널사 및 차량 전장업체에 공급 실적을 쌓았다. POLED Side Sealing 장비에서는 도포 반복 기술과 레이저 가공 기술을 내재화하였으며, Direct Bonding 분야에서는 이액형 다이내믹 믹서 헤드와 산업용 6축 로봇 기반 곡면 도포 모션 제어 기술을 확보하여 차세대 커브드·폴더블 디스플레이 대응 역량을 갖추었다. 카메라모듈 테스터(CMT) 분야에서는 5M·8M·13M급 검사 장비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딥러닝 기반 머신 비전 시스템과 VCM(Voice Coil Motor) 조립·공정 설비 내재화를 통해 핵심부품 자급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ToF 검사 장비와 Active Align 장비도 자체 개발하여 카메라모듈 조립 전 공정에 걸친 턴키 솔루션 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 동사의 카메라 모듈 장비



자료: 동사 홈페이지

■ 2차전지·반도체·차세대 분야 기술

동사는 2차전지 공정장비 분야에서 파우치형 전극 스테킹 장비의 양산화를 실현하고 Z-스테킹 장비를 국내 Major 고객사에 공급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리드탭 생산·검사 설비 개발을 완료하고 Battery Pack 조립라인을 자체 개발하여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는 20kW 스택 활성화 장비 개발 및 100kW급 PEMFC 평가 시스템의 상용화(포항테크노파크 납품)를 달성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 스택용 금속 분리판 레이저 사상기를 개발하여 매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는 Wafer TEG 특성 검사 장비 E8000 및 고화소 OLED 패널의 TEG·Array 측정용 융합형 다채널 고속 검사장비를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하여 반도체 테스터 시장 진입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OLEDoS(OLED on Silicon) 제조 기술 개발과 AI 자율제조시스템 구축도 국책과제로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7. 동사의 테스트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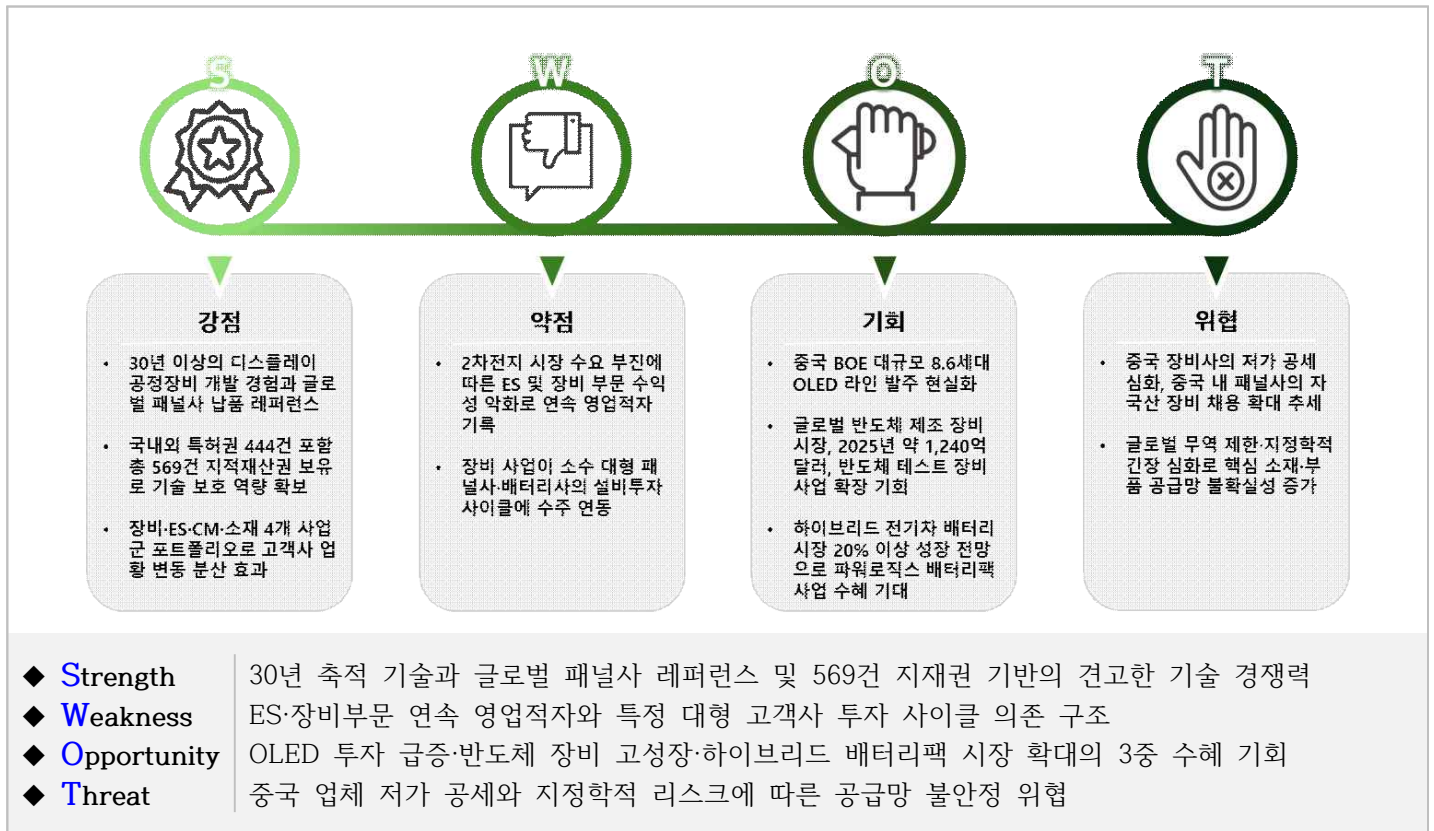


자료: 동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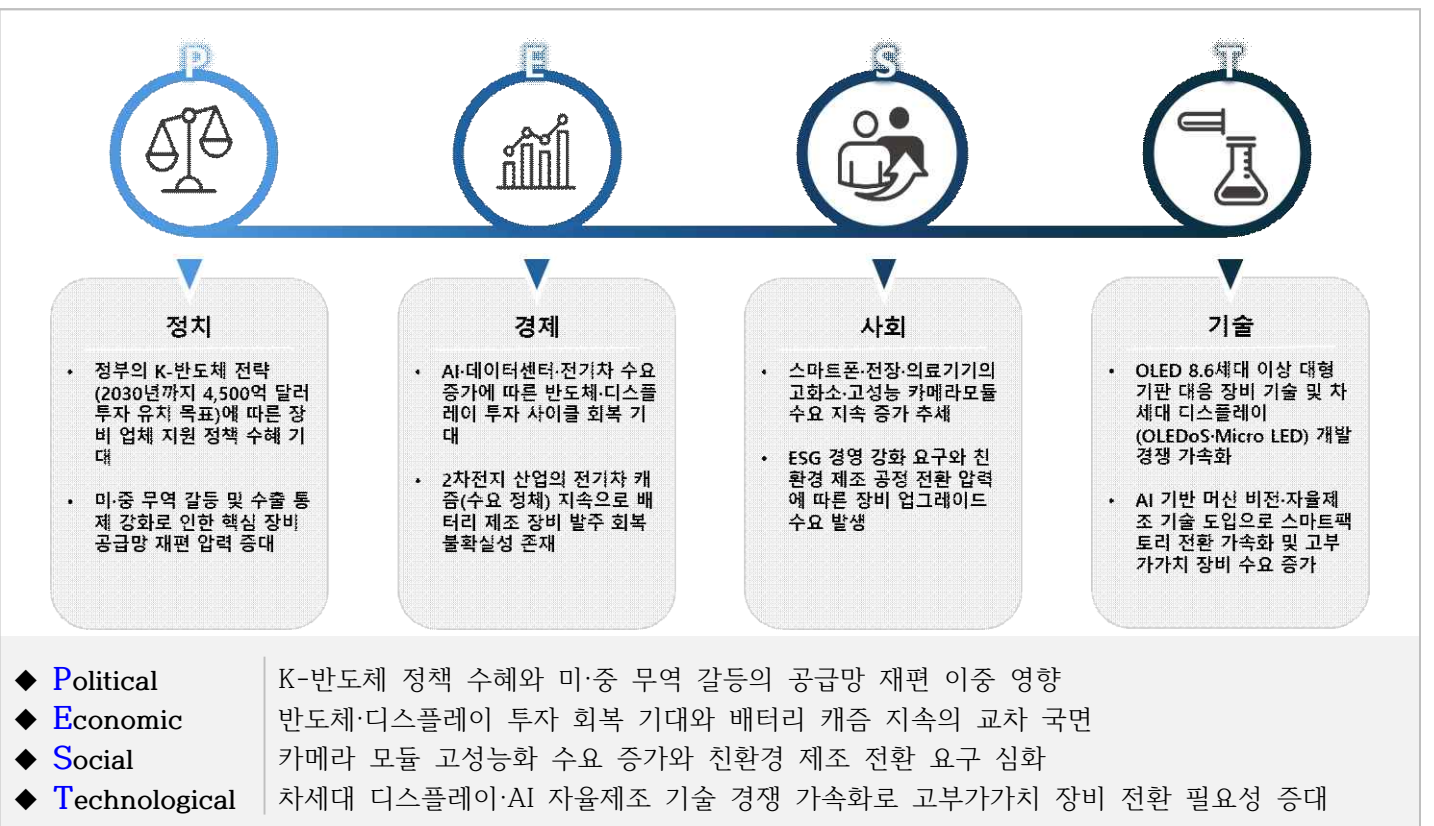
■ 연구개발 활동

동사의 연구개발비는 2023년(제31기) 약 246억 원, 2024년(제32기) 약 261억 원, 2025년(제33기) 약 199억 원(연결기준)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매출액 대비 각각 2.6%, 3.2%,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판교 R&D 센터에서 신규 장비 개발과 차세대 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6년 반기(제34기 반기) 기준으로는 R&D 비용이 약 93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1.9%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13M급 카메라모듈 테스터에 딥러닝 기반 머신 비전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Micro LED 비접촉식 EL 테스터를 자체 개발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로의 기술 확장을 실현하였다. 또한 AI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OLEDoS 패널 제조 기술, 첨단 방어무기체계 통신·레이더 모듈 조립 자동화 등 다수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기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카메라모듈 매출 확대로 2026년 반기 영업이익 144.9억 원 흑자 전환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축소된 7,985.0억 원, 영업손실은 352.2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부채비율은 70.7%로 하락하였다. 또한 2026년 반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5,022.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144.9억 원, 당기순이익 177.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 카메라모듈이 연결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장비·부품 복합 사업 구조

동사는 TFT-LCD · OLED 패널과 2차전지, 카메라모듈 공정장비를 개발 · 제조하는 장비 사업 및 종속회사 (주)파워로직스를 통해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과 휴대폰 배터리 보호회로 등 부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부문에 따라 2025년 연결조정 매출은 CM부문 4,785.7억 원(59.9%), ES부문 1,862.4억 원(23.3%), 전자부품 및 장비부문 1,115.1억 원(14.0%), EMS부문 111.0억 원(1.4%), TM부문 110.7억 원(1.4%)으로 구성되어 카메라모듈이 핵심 매출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 핵심 부문의 개선에 따라 2026년 반기 흑자로 전환된 손익 구조

2024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39.6억 원 감소한 8,154.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15.0%), 영업이익은 293.7억 원 감소하며 74.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었고, 당기순이익은 175.3억 원 감소한 45.6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0.9%, 순이익률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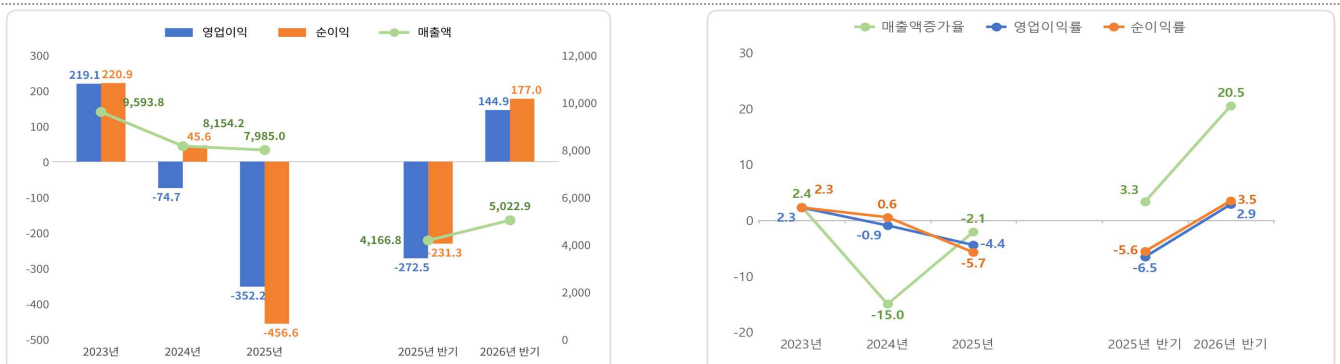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9.2억 원 감소한 7,985.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2.1%), 영업손실은 277.5억 원 확대된 352.2억 원, 당기순이익은 502.2억 원 감소하며 456.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4.4%, 순이익률 -5.7%).

2026년 반기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6.1억 원 증가한 5,022.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20.5%), 영업이익은 417.4억 원 개선된 144.9억 원, 당기순이익은 408.4억 원 개선된 177.0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2.9%, 순이익률 3.5%).

2026년 반기의 이익 개선은 CM부문, 전자부품 및 장비부문의 회복이 주도하였다. 당기순손익은 CM부문이 -54.3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전자부품 및 장비부문이 -114.2억 원에서 55.7억 원으로 증가하여 두 부문이 동반 흑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8.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부채비율 64.2%-유동비율 168.3%로 안정성을 유지한 재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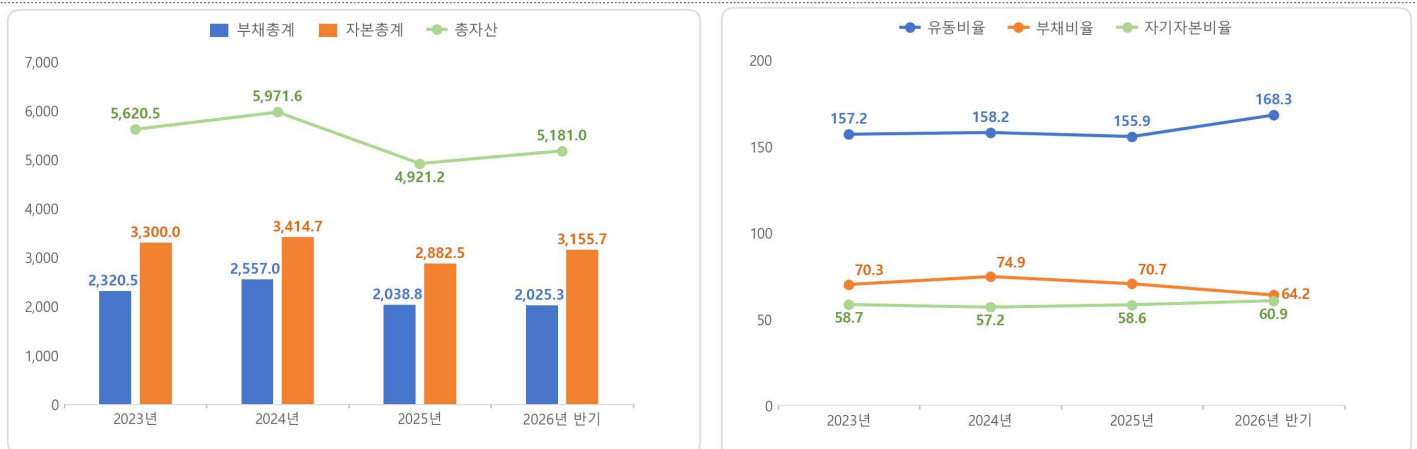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351.1억 원 증가한 5,971.6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236.5억 원 증가한 2,557.0억 원, 자본총계는 114.6억 원 증가한 3,414.7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0%p 상승한 158.2%, 부채비율 4.6%p 상승한 74.9%, 자기자본비율 1.5%p 하락한 57.2%).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050.4억 원 감소한 4,921.2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518.2억 원 감소한 2,038.8억 원, 자본총계는 532.2억 원 감소한 2,882.5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2.3%p 하락한 155.9%, 부채비율 4.2%p 하락한 70.7%, 자기자본비율 1.4%p 상승한 58.6%).

2026년 반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219.2억 원 증가한 5,181.0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15.5억 원 증가한 2,025.3억 원, 자본총계는 103.6억 원 증가한 3,155.7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6.7%p 상승한 168.3%, 부채비율 1.6%p 상승한 64.2%, 자기자본비율 0.6%p 하락한 60.9%).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반기	2026년 반기
매출액	9,593.8	8,154.2	7,985.0	4,166.8	5,022.9
매출액증가율(%)	2.4	-15.0	-2.1	3.3	20.5
영업이익	219.1	-74.7	-352.2	-272.5	144.9
영업이익률(%)	2.3	-0.9	-4.4	-6.5	2.9
순이익	220.9	45.6	-456.6	-231.3	177.0
순이익률(%)	2.3	0.6	-5.7	-5.6	3.5
부채총계	2,320.5	2,557.0	2,038.8	1,909.8	2,025.3
자본총계	3,300.0	3,414.7	2,882.5	3,052.1	3,155.7
총자산	5,620.5	5,971.6	4,921.2	4,961.8	5,181.0
유동비율(%)	157.2	158.2	155.9	161.6	168.3
부채비율(%)	70.3	74.9	70.7	62.6	64.2
자기자본비율(%)	58.7	57.2	58.6	61.5	60.9
영업현금흐름	359.3	139.8	193.7	-80.0	-119.0
투자현금흐름	-52.9	-136.5	-124.2	-28.4	-135.9
재무현금흐름	-56.9	-97.5	-151.4	-3.6	100.3
기말 현금	607.3	541.1	470.8	428.4	344.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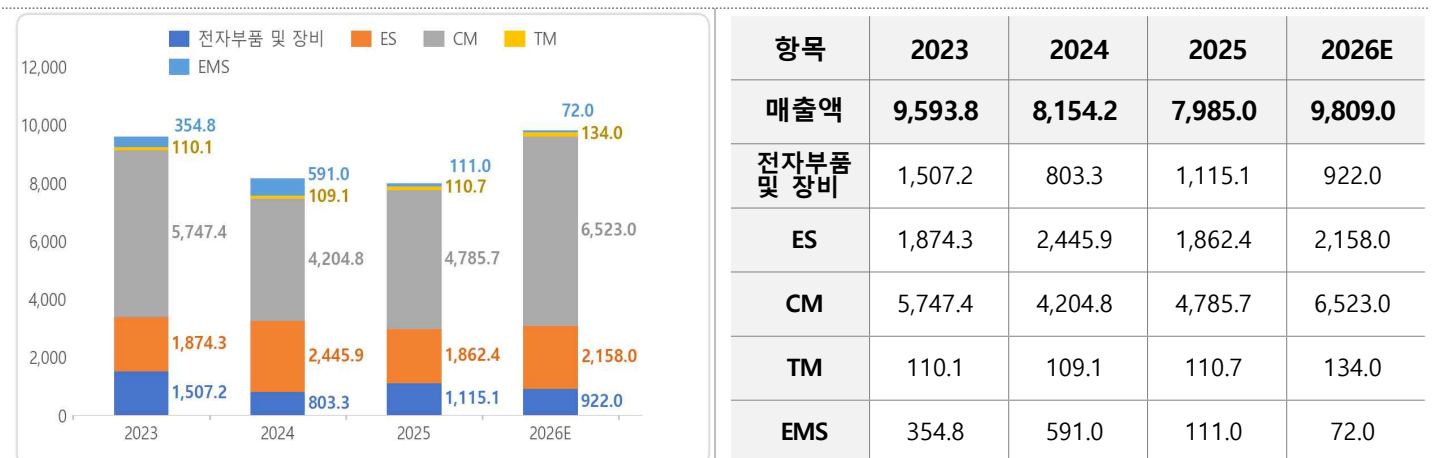
동사의 향후 실적은 카메라모듈 주요 고객사 매출과 2차전지 부품 사업의 제품 전환이 성장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CM부문에 대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의 선행개발 및 독점 공급과 자동화 투자에 따른 고정비 감소를 근거로 2026년 실적 반등을 예상하였다. 실제로 2026년 반기 CM부문 매출은 3,344.2억 원으로, 2025년 CM부문 매출 4,785.7억 원의 70%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카메라모듈 시장도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기능화와 멀티카메라 채용 확대에 따라 성장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ES부문은 리드탭 사업을 통합해 고정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2026년 초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팩 공급을 본격화하여 매출을 추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부품 및 장비부문은 반기 매출이 6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별도 기준 수주잔고가 2025년 말 409.7억 원에서 2026년 6월 말 445.0억 원으로 증가하여 향후 매출 인식의 기반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EMS부문은 반기 매출이 3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어 연간 감소가 예상된다. TM부문은 2025년 하반기 폐기물 재처리 허가 취득을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 성과가 실현될 것으로 파악된다.

재무 측면에서는 원가 구조 개선의 지속 여부 및 매출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대응이 관건으로 판단된다. 2025년 인식한 자산 손상은 향후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져 영업레버리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반기 판매비와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어 고정비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말 기준 연결 총유동성이 1,170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어 운전자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8% 성장한 9,80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전년 7,985억 원 대비 1,824억 원 증가하는 수준으로, 증가분은 CM부문 성장 1,737.3억 원, ES부문 성장 295.6억 원, TM부문 성장 23.3억 원이 기여하고, 전자부품 및 장비부문 -193.1억 원과 EMS부문 -39.0억 원이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경우 카메라모듈 매출이 확대되며 전망을 상회할 수 있고, 반대로 스마트폰 수요 둔화나 2차 전지 전방 투자가 지연될 경우 하회할 수 있다. 카메라모듈 매출 확대와 고정비 절감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2026년은 외형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는 해로 기대된다.

그림 10.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및 추정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사업 체질 전환과 업황 회복의 교차점, 2026년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

동사는 장비 생산거점 해외 이전, 2차전지 사업 구조조정, CM 부문 독점 모델 공급 등 체질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중국 BOE의 OLED 발주 확대 등 외부 업황 개선과 맞물려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적 안정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 구조 재편과 원가경쟁력 회복

동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2차전지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리드탭 사업부문을 파워로직스 ES 사업부문으로 통합하여 연구개발·생산·영업 인프라를 일원화하였으며, 장비 생산거점을 베트남 해외법인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식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2025년 연결기준 약 232억 원에 달하지만, 이는 2026년 이후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져 고정비 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5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치주식보상제(RSU)를 도입하여 핵심 인재 유지 기반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동사는 2026년 상반기 기준 별도 기준 약 400억 원, 연결 기준 약 699억 원의 미사용 여신 한도를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측면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OLED 투자 확대와 BOE 수주 기대감

2026년 전 세계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하며, OLED 투자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중국 BOE가 약 12조 원을 투입해 쓰촨성 청두에 건설 중인 8.6세대 OLED 공장(B16라인)의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요 OLED 장비사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사가 Dispenser·GCS 계열에서 BOE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기존 LCD 장비 시장에서 검증받은 Dispenser와 GCS 기술을 OLED 공정에 적용하여 국내외 패널사에 공급해 온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 중화권 OLED 발주 사이클 재개 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배터리팩/전장/화장품 자동화 신수요 창출

파워로직스는 2026년 초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팩 공급을 본격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소형 모바일용 PCM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전장용 배터리팩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6년 약 260억 달러 수준에서 2031년 약 657억 달러로 CAGR 2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동사 계열사의 배터리팩 사업 성장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장비부문에서는 디스플레이 이외 고부가가치 산업의 자동화 설비 수주를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화장품·제약·전장 분야 자동화 설비 수주를 추진하고 있어 고객 기반 다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탐머티리얼즈의 폐기물 재처리 허가 취득에 따른 도시광산 신사업 본격화와 반도체 Wafer TEG 검사 장비의 양산 레퍼런스 확보 추진이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탐엔지니어링(06513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탐엔지니어링은 최근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공정장비 사업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후공정 장비 분야로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한 신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 회복과 더불어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첨단 산업 내 고부가가치 장비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 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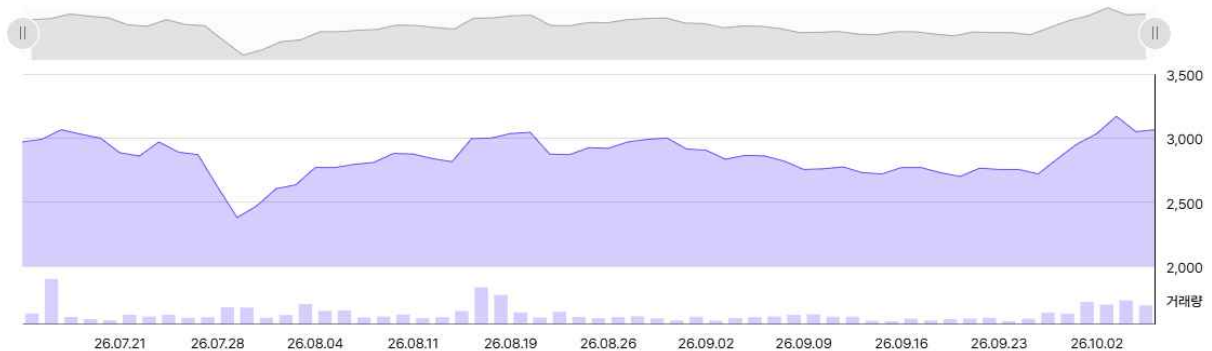
065130 코스닥

3,065 ▲15 +0.49%

단위 : 원, 주, % 기준 일자 : 2026.10.08

전일 3,050 고가 3,160 거래량 53,404 주
시가 3,050 저가 2,995 거래대금 165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6.10.0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탐엔지니어링	X	X	X